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 분석 2차 결과보도(2015.02.16.)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이 25%에 달했으며, 이중 98%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2014년 6월~8월) 간의 기사를 분석해 사교육 기사형 광고 관련 내용을 작년 12월 2일에 1차 발표하였고, 이어서 2014년 9월~11월까지 기사를 분석하여 이번에 2차로 발표함.

▲ 전체 교육섹션 기사 208건 중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25%(52건)에 달해 지난 1차 결과인 30%와 비슷하였음. 특히 사교육 기사형 광고 52건 중 조선일보 34건, 동아일보 17건으로 98%가 두 언론사의 기사였음. 반면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1건과 0건으로 건강한 보도 작성을 함.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음(61.5%, 32건).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은 25.0%(13건)를 차지해,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증가(15.9%→25.0%)하여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 확대가 두드러졌음.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으나(46.2%, 24건), 인터뷰 기사가 그 다음으로 32.7%(17건)를 차지함. 인터뷰 기사 17건 중 82.4%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관계자임. 인터뷰의 경우에는 주로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주로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여지가 큼.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92.3%(48건), 학원관계자가 5.8%(3건)를 차지했는데 내부기자가 작성

**한 기사 중 29%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기사로 학원의 프로그램 및 설명회를 소개하는 식의 기사를 쓰며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고 있었음.**

**▲ 보완책으로는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언론사가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해야 할 교육섹션에서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로 지면을 채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사교육 유발하는 행태를 감지하였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2014년 9-11월까지의 기사를 2차 분석[1]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식은 <부록1>에 첨부하였습니다.

**■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 208건 중 25%(52건)에 달했고, 특히 52건 중 51건(98%)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였고, 중앙일보 1건, 한겨레신문 0건을 보임.**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통틀어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 기사 대상[2] 208건 중 25.0%인 52건에 달해, 전체 교육섹션 기사 중 1/4을 차지하는 기사가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차 분석 결과(총 211건 기사 중 63건, 29.9%)에 비해서는 다소 비율이 낮아졌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특히 전체 52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중 조선일보가 34건, 동아일보가 17건 등 두 언론사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가 51건으로 98%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언론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전체 72건의 기사 중 34건(47.2%), 동아일보는 이와 동률인 전체 36건 중 17건(47.2%) 그리고, 중앙일보는 전체 33건의 기사 중 1건(3.0%)의 기사가 사교육을 홍보하는 기사였습니다. 한겨레는 전체 67건의 기사 중 사교육을 홍보 기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의 비율(47.2%)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1차 분석에 비해 비율상 감소(50.0%→47.2%)한, 반면 동아일보는 1차 분석에 비해 증가(33.3%→47.2%)하였습니다.

---

1) 6-8월까지의 1차 분석 결과는 2014년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2) 광고 및 단신, NIE, 대학 관련, 제약/아파트/식품 관련 제외

[그림1] 4개 일간지 전체 기사 중 기사형 광고 비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 data.noworry.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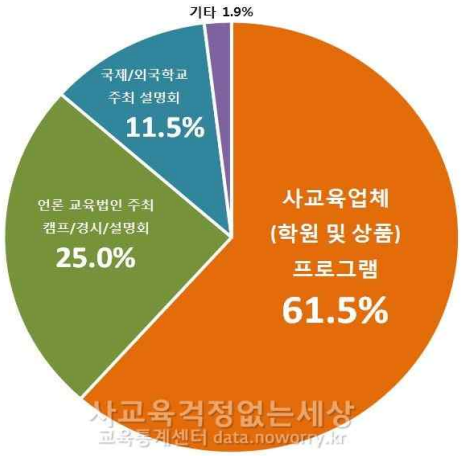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61.5%(32건)이 가장 많았고,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25.0%(13건)를 차지함. 전체 기사형 광고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증가(15.9%→25.0%)하여 자사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홍보가 지난 1차 분석보다 두드러졌음.**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3]이 61.5%(총 52건 중 32건)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사 교육법인 주최 캠프·경시대회·설명회가 25.0%(13건), 국제/외국학교 주최 설명회는 11.5%(6건), 기타 1.9%(1건)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 '사교육 업체의 프로그램'(32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59.4%인 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13건이었습니다.

지난 1차 분석 결과에서 전체 기사 중 15.9%(10건)을 차지했던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2차 분석에서는 25.0%(13건)로 전체 기사형 광고 수가 줄어듦에도 오히려 수가 증가(10건→13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곧 자사 교육법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교육지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총 13건)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9건, 동아일보 4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림2] 기사형 광고 형태별 비율

3) 학원 자체 소개 및 상품 관련




[그림3-1] 언론 교육법인 프로그램 예시 : 조선일보 교육법인 '맛있는유학' 프로그램소개 (조선 2014-09-22)

기자 이름이 달려 있고, 조선일보 교육법인에서 설립한 '맛있는유학'에서 소개하는 필리핀+미국·캐나다 연계 유학 프로그램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듯 하지만, 오른쪽 하단엔 설명회 관련한 세부사항을 넣어서 홍보의 목적을 담고 있음.

필리핀 영어 기초 마스터 + 미국·캐나다 명문학교 교육 체험

**필리핀+미국·캐나다 연계 유학 프로그램**

영미권으로 자녀 유학을 보내려는 학부모는 고민이 많다. 학교와 기숙사, 홈스테이 가정 등 체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수준 높은 정규 학교에 잘 적응할지도 걱정이다. 학부모의 이 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맛있는유학은 '필리핀+미국·캐나다' 연계 유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참가자는 필리핀에서 1대1 수업을 통해 영어 기초 실력을 다진 뒤, 미국과 캐나다의 명문 학교에서 선진 교육을 체험한다. 맛있는유학이 그간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검증받은 필리핀, 미국, 캐나다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의 장점만을 모은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박기석 맛있는공부 기자

◇필리핀에서 몰입교육으로 영어기초 튼튼히

영미권 국가에서 유학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국내 영어학원에 다니던 학생은 실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단기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도 이론 교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연계 유학 프로그램은 여기에 주목했다. 영미권 유학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 맛있는유학에서 성공적인 유학을 경험한 수천 건의 학생 피드백 자료를 분석했다. 영어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필리핀 몰입교육을 통해 유학의 1단계를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업은 1대1 또는 1대4의 소수 맞춤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 효과를 얻는다.

현재 필리핀 관리형 유학에 참가 중인 전현태·정현함(이상 초6·군은 필리핀에 온 지 8개월 만에 SLEP(중등학교 영어 능력) 점수가 30점씩 올라 각 60점, 53점을 기록했다.(67점만점) 1대1 혹은 원어민 교사 한 명에 학생 서너 명을 그룹 지어 가르치는 맞춤형 수업 덕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학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국제학교 MGIS (Mahatma Gandhi International School)의 커리큘럼을 따른다. 필리핀 관리형 유학의 현지 총책임자인 남정수 원장은 "MGIS 교과 과정은 미국·캐나다 정규 학교와 같아 영미권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적응에도 도움 된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에서 고급 영어 배우며 선진 교육 체험

연계 유학 참가자는 5개월간 필리핀에서 몰입형 수업을 받은 뒤 미국과 캐나다 중 하나를 선택해 관내 명문 학교에 다니게 된다. 캐나다는 원버한 영어 몰입형 환경이 특징이다. 맛있는유학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빌리컴교육청과 한국인 유학생 입학 독점 계약을 맺어 학교당 한국인 유학생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 학교가 위치한 밴쿠버 아일랜드는 백인 비율이 97% 이상이며 유해 시설이 거의 없다. 현재 10개월 과정 관리형 유학에 2회째 참여 중인 김현경(빌리컴 세컨더리 스쿨 10년)양은 "대부분의 학생이 모두 캐나다 현지 학생"이라며 "원어민 학생들과 지내다 보니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기숙사에서 지내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하는 유학생이라면 미국 보스턴 지역이 알맞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세계 최고 대학이 위치한 곳으로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학군이기 때문이다. 알링턴가를 비롯, 세인트피터스쿨 등 현지 명문 학교는 맛있는유학과 단독 계약을 맺고 맛있는유학을 통해서만 한국 유학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유학 중인 이인혁(알링턴가를 비롯 10년)군은 "학교 및 지역의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MIT와 라이벌인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 출신 교사에게 화학 AP(Advanced Placement·대학 과목 선이수제)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학 분위기에 휩싸여 주말이 공부하다 보니 9학년 평점이 4.05를 기록했고, 명문으로 이름난 듀크대 경영학과나 UC 버클리대 경제학과에 진학하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뛰어난 상위권 학생이라면 홈스테이 관리형 유학을 선택할 수도 있다. 관리자는 호스트 가정에서 학생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 상담교사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심적 관리도 도맡는다.

**필리핀+미국·캐나다 연계 유학 설명회**

맛있는유학은 '필리핀+미국' '필리핀+캐나다' 연계 유학 설명회를 오는 23일과 27일 개최한다. 연계 유학은 초3~중3 대상이며, 2015년 1~3월 출국한다.

- 설명회 일시: 9월 23일(화), 27일(토) 오전 10시 30분
- 설명회 장소: 맛있는유학 서울본사(강남구 역삼동 세방빌딩 11층)·부산지사(해운대구 우동 센텀리더스타크 4306호)
- 신청·문의: 1588-0598(서울본사) (051)745-8990(부산지사) www.uhakchosun.com

[그림3-2] 학원 주최 경시·설명회 기사 예시 : 캠브리지코리아 'A레벨 과정'을 홍보함 (조선 2014-10-06)

기자 이름이 달려있어 기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해외대학에 합격한 한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외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이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부분이 있음.

캠브리지 코리아에서 6개월 만에 英 명문대 합격한 군

"적성에 맞는 과목만 집중… 'A레벨 과정'으로 유학 꿈 이뤘어요"

영국 더럼대 경제학과 1학년인 이(17·사진)군. 중학 시절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영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는 꿈만은 확고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교과서에 처음 경제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죠. 더 알아보고 싶어 도서관에서 관련 도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이군이 읽었던 책 가운데는 홍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경제학의 역사'(박영사)도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에서는 지나치게 미국 주류 경제학만 다룬다'는 비판과 분석을 읽은 그는 영국에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곧바로 영국 고교에 진학할까 고민하던 이군에게 어머니는 '캠브리지 A레벨 과정'을 소개한 신문 기사를 내밀었다. 그는 한국에서 영국과 똑같은 대학진학 준비과정(A레벨)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곧바로 등록했다.

검정고시를 통해 국내 고졸자격을 취득, 캠브리지 A레벨 과정 수강 요건도 갖췄다. 지난해 5월 개강 이후 하루 9시간 주 5일 수업이라는 빡빡한 일정을 거쳐 결국 이군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A레벨 최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더럼대에 합격한 것은 물론, 호주국립대(ANU) 등을 포함한 호주 최고 명문대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와 동갑내기인 1996년생 국내 고교생보다 반년이나 빠른 대학 진학이다. 영국 대학 입시는 고교 내신 대신 전 대학 공통 자기소개서와 A레벨 성적만으로 이뤄진다.

이군은 A레벨의 장점에 대해 "적성에 맞는 공부 이외에 다른 과목에는 흥미가 없는 내게 특히 잘 맞았다"라고 말했다. "SAT(미 대학입학자격시험) 같은 경우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싶더라도 반드시 에세이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성에 맞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는 A레벨이 좋았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고교 과정을 마쳤다면 내 미래가 어땠을지 잘 모르겠다"는 이군은 "외국에 나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A레벨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캠브리지 A레벨 과정에서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이랑 정말 즐겁게 공부했어요. 잘 끝마치고 나니 자신감도 붙었고요. 이제 영국에 가서 새로운 꿈에 한발 더 다가서야죠." 이해나 맛있는공부 기자

美·英 명문대 입학 준비생 위한 무료 특강 11일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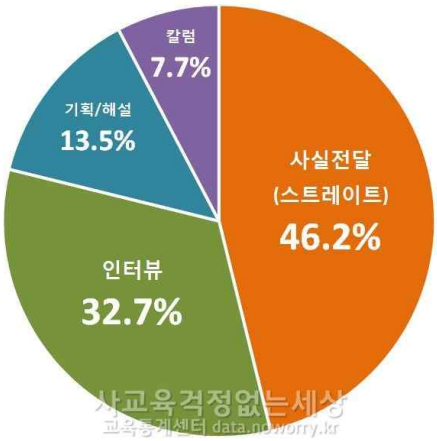
영국 케임브리지대 CIE(케임브리지국제시험기관)의 한국 유일 공식지사인 조선에듀케이션이 미국·영국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 잘못된 유학 상식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명문대 유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다. 학생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학 전략을 세우고 현 수준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유학상담컨설턴트가 제시한다. 캠브리지 A레벨을 통해 지난해 뉴욕대·텍사스오스틴대·미시간엔아버대·위스콘신대·퍼듀대(이상 미국), 런던정경대·런던대·더럼대·워릭대(이상 영국) 등에 합격했다.

- 설명회 일정: 10월 11일(토) 오전 11시
- 대상: 고교 졸업(예정)자와 학부모
- 장소: 서울 세방빌딩(선릉역 3번 출구)
- 문의: (02)575-8670(※사전예약 필수) cambridgekorea.org

**■ 기사 형식별로는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 46.2%(24건)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인터뷰 기사가 32.7%(17건) 차지함. 인터뷰 기사 17건 중 82.4%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관계자임. 인터뷰 기사는 사실전달 기사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함.**

기사 형식별로 살펴보면, 사실전달(스트레이트) 기사가 46.2%(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뷰 기사가 32.7%(17건), 기획/해설 기사는 13.5%(7건), 칼럼 기사는 7.7%(4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기사의 경우, 17건 중 14건(조선: 9건, 중앙: 1건, 동아: 3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학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하였는데, 이 또한 해당 학원을 홍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뷰라는 특징을 통해 사교육을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기사 예시는 아래에 있는 [그림 5-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4] 기사 형식별 분석**




**[그림5-1] 인터뷰 기사 예시 : '공부혁명대'의 컨설턴트가 사례를 통해 컨설팅 홍보 (조선 2014-10-27)**

지나친 학원에 대한 의존을 바로잡겠다는 얼핏 보면 공익적인 형태의 기사 같으나, 맛있는공부 스터디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부혁명대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임. 이 곳에서 공부 방법을 컨설팅 받은 학생들의 예시를 들으며 해당 학생의 성적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 등. 학원보다 컨설팅을 통해 성적을 올리라는 홍보를 하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할 여지가 있음.

"폭발적 관심 놀라… 지나친 학원 의존 바로잡겠다"

대치동에 뜬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과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공부법

"영어 실력이 유독 떨어져 학원을 3개씩 보내는데도 발전이 없네요."

9월과 10월 서울 대치동에서 세 차례 개최된 '공부혁명&성적반란' 무료특강과 이어진 무료상담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원을 여러 곳 보내는데도 성적이 도무지 안 오른다"며 고민을 쏟아냈다. 송재열 공부혁명대 대장은 "강남 학부모가 흔히 착각하는 지나친 학원 맹신"이라며 "학생·학부모의 본지마식 학원 순례를 바로잡고 1대1 맞춤형 성적 향상 비법을 알려주는 게 공부혁명대의 목표"라고 말했다. 13년 경력의 국내 최고 학습 컨설턴트 송 대장이 나선 세 차례 무료특강은 대치동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들이 몰려올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강남 대치동 맛있는공부스터디센터에서 공부혁명대를 오픈한 송 대장과 대표 컨설턴트들로부터 성적 향상 비법과 성공 사례를 들어봤다. 박기석 맛있는공부 기자

◇원칙과 신념 가진 컨설턴트가 맞춤형 처방 내려

자기주도학습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발 빠른 대치동 학원가에는 '자기주도 학습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하지만 대부분 학원은 아이 공부 계획을 감시하는 등 단순 관리에만 치중한다. 송 대장은 "공부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론, 방대한 자료를 갖춰야만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으로 △읽기 △쓰기 △암기 △복습 △반복을 제시했다. 예컨대 학원 자료 등 요약된 정보에 익숙해진 학생은 시험 문제나 지문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장우석 공부혁명대 교육팀장은 "이런 학생에게는 교과서나 개념서 등 원문을 읽고,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송 대장을 포함한 컨설턴트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공유한다. 담당 컨설턴트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다른 컨설턴트가 문제를 지적해 준다. 송 대장 외에도 고교 수학 교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대치동 논술강사 등 컨설턴트들의 이력은 화려하다. 이들은 △공부법 △입시 제도 △교재 등 컨설팅을 위한 연구에도 매진한다.

Case 1 | "학원만 다닌다고 성적 향상되지 않아"

대치동·강남 유명 재수학원에 다녀도 정체됐던 성적이 공부혁명대를 만나 빛을 발했다. 임성준 컨설턴트의 말이다. "고교 시절 대치동 학원가에서 공부하고, 강남의 대형학원에서 재수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독학으로 삼수 생활을 하다가 지난 7월 컨설팅을 받았죠. 국어·수학·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각각 4·2·3등급이었습니다. 등 떠밀려 학원만 다니다 보니 스스로 계획을 못 짜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주간·일간 계획표를 짜는 방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계획표대로 공부량을 늘리자 지난 9월 대수능 모의평가에서 각 과목당 한 문제씩만 틀릴 정도로 확 달라졌어요." 이상윤 컨설턴트는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배운 것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Case 2 | "공부에 대한 최고의 동기부여는 성적 향상"

천세원 컨설턴트는 모의고사 등급이 전부 6등급이던 고 1 남학생을 6개월 만에 수학(B형) 1등급으로 만들었다. 비결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 공부에 재미를 붙여준 데 있다. "지난해 12월에 만나 관심 과목인 수학부터 공부하게 했습니다. 쉬운 문제만 풀게 해 문제집 한 권을 다 뗐어요. 해냈다는 느낌이 들자 심화 학습을 하더라고요."

조재형 컨설턴트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욕심을 버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모와 아이가 목표를 합의하게 하고, 자녀가 목표를 이루게 돕자 욕심이 생겨 다른 과목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Case 3 | "올바른 공부법 있어야 성적 향상 가능해"

공부 시간과 성적이 비례하지 않다면 이승민 컨설턴트를 주목하자. 이 컨설턴트는 "국어 문제는 많이 푸는 게 왕도가 아니다"며 "답을 고를 때 꼭 근거를 생각하고, EBS 연계교재의 분량 자체를 손으로 정리하자 지난해 수능 4등급이던 국어 성적이 올해 9월 1등급으로 급상승한 경기여고 졸업 재수생이었다"고 말했다.

최수연 컨설턴트가 가르친 고 3학생도 3개월 만에 영어 모의고사 등급을 3등급(5→2) 올렸다. "감으로 답을 찾던 학생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만나 지문을 빈칸이 해석하고 이를 손으로 써보게 했어요. 9월 모의평가 때 영어를 3등급 맞더니 지난 10월 모의평가는 2등급까지 올랐어요."

●문의: (02)565-2990 (맛있는공부 스터디센터)

공부혁명·성적반란!

겨울방학 학습 전략 무료 강연회

-장소 교통회관서… 선착순 400명 마감

국내 최고의 학습 컨설턴트 송재열(맛있는공부 공부혁명대 대장)과 윤의섭(맛있는공부 공부혁명대 소장)이 충파·강동지역 학부모·학생을 위한 무료 특강을 연다. △겨울방학을 인생 역전의 시간으로 만드는 비법 △중 3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SKY 대학 갈 수 있는 로드맵 △고 1도 절대 놓지 않은 공부 콘텐츠 △고 2가 3학년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공부법 △특목고에 진학하는 데 꼭 준비해야 하는 공부 리스트 △학원 10개씩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교 150등이 서울대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공부 비법, 반 5등이 외고 전교 1등 졸업한 사연 등도 공개한다. 강연 참석 후 신청자에 한해 공부혁명대 컨설턴트가 직접 학습 진단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12월 6일(토) 11-13시

●대상: 중 3-고 2 학생과 학부모

●장소: 서울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주차 불가능)

●문의: (02)404-8709(※선착순 마감)

**[그림5-2] 칼럼 형식의 기사 예시 :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사교육업체 대표가 작성함 (조선 2014-11-17)**

학원관계자가 쓴 에듀칼럼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수학 공부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이지만, 해당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전문가가 필요한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칼럼인지 홍보인지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에듀칼럼 올림피아드교육

'말하는 수학 공부법' 사고력·창의력 키워

교사가 강의하면 학생은 열심히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방식이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사고를 폭넓게 확장시키기도 어렵고 학습효과도 크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수학공부를 하는 한국 학생들이 고교 2학년이 되면 무려 7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로 전락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다. 지금 같은 주입식 암기교육을 지속하는 한, 한국의 미래엔 기대할 게 없다.

잘못된 수학교육을 뿌리부터 바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재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델이 바로 플립러닝(거꾸로 교실) 학습법 기반 '말하는 수학'이다.

'말하는 수학학습법'을 통해서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두뇌가 끊임없이 활성화된다. 말하는 수학교실에서는 학생이 수업에 적극 참여해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끊임없이 말로 설명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수업'이 진행된다. 질문하기 위해 생각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생각해야만 한다.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두뇌를 써야 하고,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 수학 교과의 본질이 생각하는 능력(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창의력)을 기르는 학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말하는 공부법이야말로 수학 과목에 가장 적합하다.

△활발한 문답식 수업 △또래 가르치기 △토론과 발표 △학생이 교사에게 거꾸로 설명하기 등 따분한 교실수업이 '수학적 의사소통'이 살아있는 참여수업 방식으로 바뀌면 학생의 학습 몰입도가 높아지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도 길러진다. '말하는 수학'에 기반한 참여수업을 핵심 교수학습전략으로 전면화한 유투엠과 거꾸로 수학교실의 재원생이 놀라울 정도의 성적향상을 이뤄내는 비결이다. 개원하는 캠퍼스마다 등록한 지 5~6개월 만에 학교 성적이 15~20점 상승하는 학생이 쏟아져 나온다. 전체 재원생의 평균점수는 95점대를 기록했다. 말하기 학습전략에 숨은 학습효과 덕분이다.

21세기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세 가지 핵심역량은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이다. 이를 길러주는 '말하는 수학공부법'이야말로 미래 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혁신적 대안 모델임이 분명하다.

양환주 올림피아드 교육 대표

유투엠 신규 캠퍼스 개원

국내 최초로 '플립러닝(거꾸로 교실) 학습법'을 창안한 올림피아드교육이 오는 12월 1일(월) 말하는 수학학습법을 프로그램화한 유투엠과 거꾸로 수학교실을 전국 동시 개원한다. 유투엠 수학학원은 안양평촌과 강서발산 지역에 직영점을 연다. 안양평촌 캠퍼스에서는 매주 수·목요일(오후 5시 30분)과 토·일요일(오전 11시) 신입생 레벨테스트와 학습프로그램 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강서발산 캠퍼스에서는 오는 18일(화) 오전 11시 개원설명회가 열린다. 전국 27개 지역에서 개원하는 유투엠과 거꾸로 수학교실의 개원일정은 홈페이지(www.u2math.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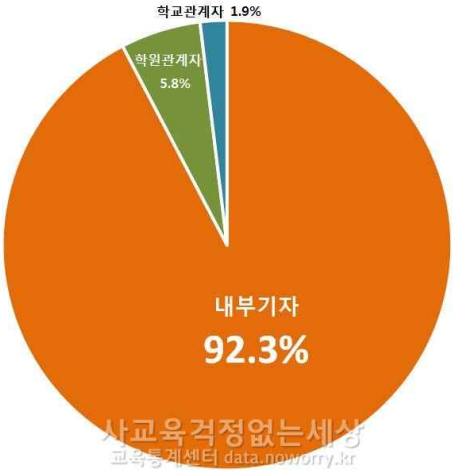
● 문의: (031)381-7007(안양평촌) (02)2063-3434(강서발산)

**■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92.3%(48건), 학원관계자가 5.8%(3건)를 차지함.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29%에 해당되는 14건은 학원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기사로 학원의 프로그램 및 설명회에 대한 소개를 하며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고 있었음.**

작성자별로는 내부기자가 92.3%(4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1차 분석에 비해 내부기자가 차지한 비율은 증가(77.8%→92.3%)했습니다. 이어 학원관계자가 5.8%(3건), 학교관계자는 1.9%(1건)을 차지했습니다.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내부기자가 작성한 총 48건 가운데 조선일보는 31건, 동아일보는 16건, 그리고 중앙일보는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기사형 광고로 판정된 기사 중 90% 이상이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것은 기자가 상업적인 요구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부기자가 작성한 경우 92.3%(48건)보다 학원관계자가 차지하는 경우는 5.8%(3건)으로 학원관계자가 표면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내부기자가 작성한 48건 중 14건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로, 내부기자가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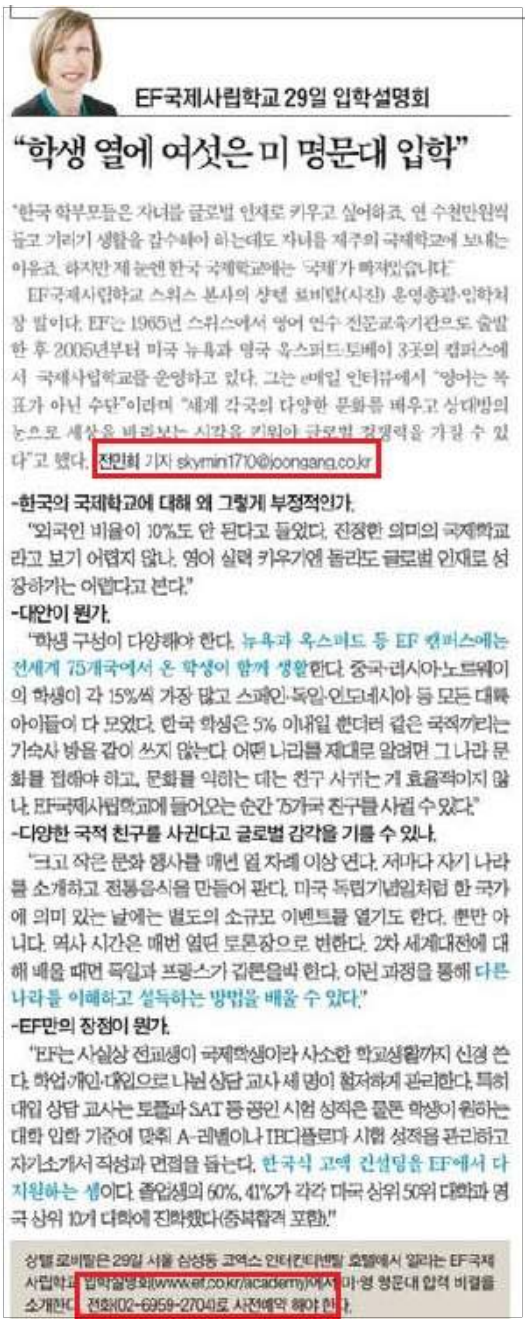
**[그림6] 기사 작성자별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 data.noworry.kr

[그림7-1] 내부기자 작성 기사 예시 : EF국제사립학교 입학 설명회 홍보 기사(중앙 2014-11-12)

기사의 형태로 작성되었지만, 헤드라인 부터 'EF국제사립학교 입학 설명회'라는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음. EF국제사립학교의 입학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국제학교를 홍보를 하고 있음. 기사 제목부터 "학생 열에 여섯은 미 명문대 입학"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주된 내용은 광고 및 홍보 내용인데 이를 기사로 내는 것은 독자에게 홍보인지 정보제공인지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EF국제사립학교 29일 입학설명회

"학생 열에 여섯은 미 명문대 입학"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어하죠. 연 수천만원씩 들고 기러기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자녀를 제주의 국제학교에 보내는 이유죠. 하지만 제 눈엔 한국 국제학교에는 '국제'가 빠져있습니다."

EF국제사립학교 스위스 본사의 상텔 로비탈(사진) 운영총괄·입학처장 말이다. EF는 1965년 스위스에서 영어 연수 전문교육기관으로 출발한 후 2005년부터 미국 뉴욕과 영국 옥스퍼드·토베이 3곳의 캠퍼스에서 국제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e메일 인터뷰에서 "영어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전민희 기자 skymin1710@joongang.co.kr

**-한국의 국제학교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적인가.**

"외국인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들었다.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교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영어 실력 키우기엔 돌리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대안이 뭔가.**

"학생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뉴욕과 옥스퍼드 등 EF 캠퍼스에는 전세계 75개국에서 온 학생이 함께 생활한다. 중국·러시아·노르웨이의 학생이 각 15%씩 가장 많고 스페인·독일·인도네시아 등 모든 대륙 아이들이 다 모였다. 한국 학생은 5% 이내일 뿐더러 겉은 국적까리는 기숙사 방을 같이 쓰지 않는다. 어떤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그 나라 문화를 접해야 하고, 문화를 익히는 데는 친구 사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EF국제사립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75개국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다양한 국적 친구를 사귄다고 글로벌 감각을 기를 수 있나.**

"그고 작은 문화 행사를 매년 열 자례 이상 연다. 저마다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전통음식을 만들어 판다. 미국 독립기념일처럼 한 국가에 의미 있는 날에는 별도의 소규모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역사 시간은 매번 열띤 토론장으로 변한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울 때면 독일과 프랑스가 갑론을박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EF만의 장점이 뭔가.**

"EF는 사실상 전교생이 국제학생이라 사소한 학교생활까지 신경 쓴다. 학업·개인·대입으로 나뉜 상담 교사 세 명이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대입 상담 교사는 토플과 SAT 등 공인 시험 성적은 물론 학생이 원하는 대학 입학 기준에 맞춰 A-레벨이나 IB디플로마 시험 성적을 관리하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돕는다. 한국식 고액 진설당을 EF에서 다 지원하는 셈이다. 졸업생의 60%, 41%가 각각 미국 상위 50위 대학과 영국 상위 10개 대학에 진학했다(중복합격 포함)."

상텔 로비탈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EF국제사립학교 입학설명회(www.ef.co.kr/academy)에서 미·영 명문대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전화(02-6959-2704)로 사전예약 해야 한다.

[그림7-2] 학교관계자 작성 기사 예시: 에듀칼럼을 통해 '한국암웨이 창의놀의터' 홍보 (조선 2014-09-01)

에듀칼럼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교육칼럼인 듯 싶지만, 중반부터 한국암웨이와 하자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창의 놀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글 말미에는 관련된 연락처도 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임. 대학교수가 작성하여 신뢰도 있는 이야기 인듯 싶지만 실은 홍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음.

**에듀 칼럼** | 한국암웨이 창의 놀이터

## 놀이를 통한 경험, 아이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

어린이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경험이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됐다.

어린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넓혀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놀이'다. 놀이는 허구적이다. 놀이는 본질적으로 일상생활과 분리된 활동이자,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허구의 세계이기도 하다. 또한 놀이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며,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는 확정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게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놀이와 교육이 만나는 지점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이다. 이미 문화예술교육의 놀이성은 듀이, 로웬필드, 가드너, 브루너, 로저스 등 많은 심리학자, 교육학자의 가설을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서 구현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감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기법, 재료나 도구에 대한 기량 훈련에 국한되지 않는다.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놀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암웨이와 하자센터가 공동 추진 중인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놀이와 교육이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의 좋은 사례 중 하나다. 필자 역시 참여하는 이 창의놀이터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떴다! 골목놀이'의 경우,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노는 활동이다. 승패보다는 모두 함께 뛰어놀며 놀이에 몰입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부대끼면서 친구, 형, 누나가 생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놀이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림책이나 잡지를 놓고 자녀에게 "이 그림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이지?" "그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녀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 나무와 저 나무는 어떻게 다르지?"와 같이 아이들이 사물의 유사점과 이질감을 직접 찾게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익숙한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험을 한 어린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유형화된 이미지에 익숙해 더는 질문하지 않는 어린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절대 같지 않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자녀들에게 유태인 부모는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묻고, 미국 부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며, 한국 부모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질문한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귀가 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정 시간 어른과 대화를 함으로써 상황이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를 학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해의 관점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배울 수 있다. 상황에 대해 표현하는 언어가 풍부한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생각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창의놀이가 될 것 같다.

●문의: (02)3468-6341(한국암웨이 사회공헌팀)

백령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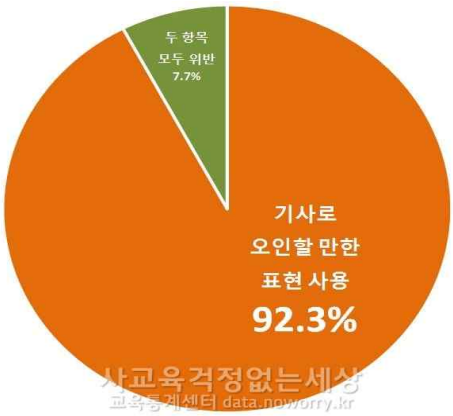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2.3%(48건),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7.7%(4건)으로 나타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자 이름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92.3%(4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광고 명시 안함, 기사로 오인 표현) 모두를 어긴 경우'가 전체의 7.7%(4건)이

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전체 34건 중 30건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었고, 동아일보가 총 17건 중 17건 모두가 기사형 광고로, 중앙일보는 1건 중 1건을 차지해,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주로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8] 위반 사유별 분석




[그림9]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한 기사 예시 : NE 매쓰큐브 '사고셈'을 홍보함(동아 2014-10-21)

기자 이름이 달려 있으나 실제로는 NE능률교육에서 주최한 '사고셈'이라는 교재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임. 제목으로도 "수포자' 안되려면 초등 연산 습관부터 잡아라!' 라는 강한 헤드라인으로 이목을 끌고 있고, 학부모에게 있어 우리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이용하는 기사임.

'수포자' 안되려면 초등 연산 습관부터 잡아라!

NE 매쓰큐브 '사고셈' 출시 기념 전국 순회 학부모 세미나

정부가 2012년 발표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국내 수학교육에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등 1~4학년, 중학 1~2학년, 고교 1학년에 확대 시행하기 시작한 '스토리텔링 수학'이 그것. 문제풀이와 공식 암기 위주로 이뤄져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았던 수학교육을 이야기로 풀어냄으로써 재미있고 흥미롭게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바뀐 수학교육과정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할까? 최근 NE 능률(능률교육)의 새로운 수학교육 브랜드 'NE 매쓰큐브'가 개정된 수학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한 유·초등 사고력 연산 교재 '사고셈'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한 전국 순회 학부모 세미나를 시작했다.

첫 번째 세미나가 서울 한국아쿠르트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사전 참가모집을 통해 선정된 유·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 명이 참가했다.

**바뀐 초등수학 대비법은?**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 1부에선 '사고셈' 저자인 출판사 지식과상상의 한현조 대표가 '새롭게 바뀐 초등 수학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공부법'에 대해 설명했다. 3부에선 교육업체 리얼디자인 고선 대표(전 경기과학고 영재교육부장)가 '독서고 입시와 초등학생 수학학습전략'을 강의했다.

한 대표는 '사고력 활동수학 시매쓰' 등 다수의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사고력 수학 패턴' 등의 전문서적을 집필한 사고력 수학 전문가.

강의에서 그는 "새롭게 바뀐 초등 교육과정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즐겁게 놀이하듯 기초 연산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연산학습은 반복적으로 연산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이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이런 연산학습을 한 아이들이 수학을 지겨워하거나 수학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잃고 심지어 '수학 포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어릴 때부터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나중에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연산문제를 풀어버리는 데 그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셈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변화하는 초등수학에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1월 6일까지 전국 순회 학부모 세미나**

NE 매쓰큐브가 출시한 사고셈은 개정된 수학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연산을 총 768개의 셈 모형으로 만들어 지루해지기 쉬운 연산학습을 유·초등 자녀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연산원법을 접함으로써 낯선 문제가 나와도 겁먹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 것. 6세부터 초등 4학년까지 연령별·단계별 총 24권으로 구성됐다.

NE 매쓰큐브는 이번 서울 세미나를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광주(10월 28일), 고양(10월 30일), 부산(10월 31일), 대전(11월 4일), 대구(11월 6일) 등 총 6개 도시에서 사고셈 출시 기념 전국 순회 학부모 세미나를 이어간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참가 예약은 NE 매쓰큐브 홈페이지(www.nemathcube.co.kr) 참조. (02-2014-7853. 이비치 기자 gic@donga.com

최근 서울 한국아쿠르트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사고셈' 저자인 한현조 대표가 강연하는 모습.

**■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의 마련과 규정의 법규성의 확보, 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함.**

기사형 광고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론 시장의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속히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안이 마련되어 이러한 기사형 광고가 철저히 규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는 상황이고, 2011년에 '신문법' 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이 되며 기존에 있던 과태료 조항마저 삭제되면서 제대 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기구가 자체  판단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기사형 광고인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정 위반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에게 정당성을 주기 위해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사교육 관련된 기사형 광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단체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시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우리의 요구 및 실천

1. 언론은 자사의 교육법인 혹은 사교육 업체의 상품 및 프로그램 소개를 교육 섹션의 기사로 다루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언론이 조장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강한 교육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 논리에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언론의 영향력과 책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부는 2011년에 기존 '신문법'에서 '신문진흥법'으로 개정되며 기사형 광고 과태료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언론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3. 사교육걱정은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언론의 책무성을 촉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02.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 구 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 <부록1>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방식

◎ **조사목적**: 사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기사형 광고’로 판정되는 기사를 분석해 관련 실태를 밝힘
(※본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사교육 홍보 기사는 사교육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여 구입 유도하는 기사임. ‘기사형 광고’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기사와 같은 보도형식을 띠는 광고를 의미함. 에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고도 지칭하는데 광고(Advertising) 와 기사(Editorial)가 합쳐진 신조어임)

◎ **조사대상**: 2014년 9월~11월 3개월간 발행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 지면. ※단, 광고 및 단신, NIE 지면, 대학 소개지면(10월 22일 중앙일보 ‘열려라 입시’), 제약, 아파트, 식품 등은 일단 제외.

◎ **조사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 및 연구원(강혜진, 김명희, 김미영, 김성보, 김혜령, 김홍일, 서미영, 용은중, 이미자, 이세희, 이주리, 이지연, 장미숙, 주소영, 한경화, 허영란, 홍민정 이하 17명)

◎ **조사기간**: 2014년 12월 17일~2015년 1월 23일

◎ **분석기준**: 모니터링을 실행한 방식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전체 지면 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 제1조와 제3조에 위반(제2조는 관계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모니터링에서는 제외)된다고 여겨지면 이를 기사형 광고로 인식하여 분석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

**[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집기준**

| |
|---|
| **제1조(광고의 명시)**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의견광고”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br>**제2조(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①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지면 상단에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br>② 면별 안내가 없는 전면 크기의 기사형광고나 전면미만 크기의 기사형광고에는 광고 외각선 및 광고란 상단에 광고 본문 글자보다 크게 “광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br>**제3조(오인 유도 표현 금지)** 기사형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 **분석방법**: 모니터링단 중 과반이상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

부록1. 조선일보 모니터링 결과

| 번호 | 게재일자 | 게재면 | 상품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 9/1 | f2 | 한국암웨이 창의 놀이터 | 0 | 0 | 0 | 0 | 0 | | | 0 | | | 0 | | 0 | 0 | | | |
| 2 | | f2 | 맛있는공부(조선일보) 스터디센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3 | 9/15 | f5 | EF국제사립학교 설명회 | 0 | 0 | 0 | 0 |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 4 | 9/22 | f2 | 맛있는유학(조선일보) 프로그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 | 9/29 | f2 | 조선 에듀케이션 공부혁명 강의 | 0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0 |
| 6 | 10/06 | f3 | A레벨과정(캠브리지코리아) 특강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7 | 10/13 | f2 | 신기한 한글나라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 | | f4 | EF국제사립학교 설명회 | 0 | | 0 | 0 |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 9 | 10/20 | f3 | NE매쓰큐브 교제, 사고셈 | 0 |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 10 | | f3 | 맛있는유학 필리핀 영,수 몰입캠프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 11 | 10/27 | f4 | KNS에듀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 0 | 0 |
| 12 | | f2 | 소년조선일보 '숲 속 힐링 통합 독서 캠프' | 0 | | 0 | 0 | | 0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 13 | | f3 | 맛있는공부 스터디센터 개최 '공부혁명대' | 0 | | 0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0 | 0 | 0 |
| 14 | 11/03 | f2 | 올림피아드 교육(유투엠) 학원 | 0 |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 15 | | f1 | 조선일보 주최 해외캠프 | 0 | |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 16 | 11/10 | f2 | 맛있는 유학 미국 스쿨링 프로그램 | 0 | | 0 | 0 |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0 |
| 17 | | f5 | EF국제사립학교 설명회 | 0 | | | | 0 | 0 | 0 | 0 | | | | 0 | 0 | 0 | | 0 | |
| 18 | | f3 | 소년조선일보,CMS에듀케이션 주최/창의적 수학토론대회 | 0 | | 0 | | | 0 | 0 | 0 | | | 0 | | 0 | 0 | 0 | 0 | |
| 19 | | f4 | NE능률, 빌드앤그로우 론칭 기념 세미나 | 0 | |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 0 | 0 |
| 20 | | f7 | PRP어학원 원장의 영어 특기자 전형 | 0 | 0 | | | 0 | 0 | 0 | 0 | | | 0 | 0 | 0 | | | 0 | |
| 21 | 11/17 | f3 | 좋은책신사고 '쎈수학' | 0 | | 0 | | 0 | 0 | | 0 | | 0 | | 0 | 0 | 0 | 0 | 0 | |
| 22 | | f4 | 남주희실용음악학원의 'NMA버클리프로그램' | 0 | | 0 | | 0 | 0 | | 0 | | 0 | 0 | 0 | 0 | | 0 | 0 | |
| 23 | | f4 | 올림피아드 교육(유투엠) 프로그램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 번호 | 게재일자 | 게재면 | 상품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24 | | f5 | 광릉한샘기숙학원 | 0 | | 0 | 0 | 0 | 0 | 0 | 0 | | | 0 | 0 | | | 0 | 0 | |
| 25 | | f5 | 청솔기숙학원 | 0 | | 0 | 0 | 0 | 0 | 0 | 0 | | | 0 | 0 | | | 0 | 0 | |
| 26 | | f7 | 제이와이북스 책 '노부영' | 0 | | 0 |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 27 | | f1 | 조선일보 주최 국내캠프 | 0 |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 0 |
| 28 | | f2 | 맛있는 유학 캐나다 밴쿠버스쿨링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 29 | | f5 | A레벨 과정(캠브리지코리아) 설명회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
| 30 | | f2 | 올림피아드 교육(유투엠) | 0 | | 0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 0 | 0 |
| 31 | | f3 | 진학사 프로그램 | 0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0 | |
| 32 | 11/24 | f3 | 양평청솔기숙학원 | 0 | | 0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 | 0 | |
| 33 | | f3 | 광릉한샘기숙학원 | 0 | | 0 | 0 | | 0 | 0 | 0 | 0 | | 0 | 0 | 0 | | | 0 | |
| 34 | | f2 | EF국제사립학교 설명회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부록2. 중앙일보 모니터링 결과

| 번호 | 게재일자 | 게재면 | 상품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 11/12 | 7 | EF국제사립학교 입학설명회 | 0 | 0 | | | 0 | 0 | | 0 | | 0 | 0 | 0 | | 0 | 0 | 0 | 0 |

부록3. 동아일보 모니터링 결과

| 번호 | 게재일자 | 게재면 | 상품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 | 9/16 | c2 | EBS초목달 | 0 | 0 |  | 0 |  |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 2 |  | c3 | 모두의 구구단 어플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 0 |
| 3 | 9/30 | c2 | 와이즈비 스마트 | 0 | 0 |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 0 | 0 |
| 4 | 10/14 | c3 | EBS초목달 | 0 | 0 |  | 0 |  |  | 0 | 0 | 0 | 0 | 0 |  | 0 |  |  | 0 | 0 |
| 5 |  | c3 | (에듀칼럼)한글영어 | 0 | 0 |  |  | 0 | 0 |  | 0 |  | 0 | 0 |  | 0 |  | 0 | 0 | 0 |
| 6 | 10/21 | c2 | NE매쓰큐브 '사고셈'세미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 |  | c3 | 윤재성영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 | 10/28 | c3 | 동아필리핀·캐나다영어캠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9 | 11/04 | c3 | 윤재성영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 | 11/11 | c1 | 동아일보 교육법인 진로스쿨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1 |  | c2 | NE능률 세미나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2 |  | c3 | ㈜공부혁명의 '공부혁명대' 설명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3 | 11/18 | c2 | 동아일보 교육법인 진로스쿨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4 |  | c3 | EBS초목달 | 0 | 0 |  |  |  |  | 0 | 0 | 0 | 0 | 0 |  | 0 |  |  | 0 | 0 |
| 15 |  | c3 | NE능률의 유아 통합독서 프로그램 '상상수프' | 0 | 0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6 | 11/25 | c2 | 동아일보 교육법인 진로스쿨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7 |  | c3 | 닥스어학원 설명회 | 0 | 0 | 0 |  | 0 | 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0 |